

곡성교육청, 문해교육전문강사 수료식

수료생 18명, 지역 학생 기초학력 향상 기여 기대 문해력 증진 운동,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 것

곡성교육청이 지난 5일 청사 내 중회의실에서 '문해교육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심화과정 연수' 수료식을 개최했다. '문해교육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심화과정 연수'는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곡성교육청과 곡성군이 함께 진행한 사업으로 2019년 '문해교육 전문강사 기본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심화과정을 이수한 18명의 수료생들은 3월부터 곡성 관내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1대1 문해능력 향상 교육을 벌이게 된다.

전효정 연수생은 "기본 과정을 이수할 때 무엇보다 아이들이 지도하기에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면서 "그런데, 이번 연수에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지도할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아이와 실제 1대1로 지도하는 것을 직접 실천하면서 학교에 나가서도 잘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허성균 교육장은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다른 전체적인 학습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의 문해력을 또래 수준으로 회복 시켜주는 것에 집



중할 계획이다."면서 "이런 활동에 곡성공공체가 모두 함께 한다면 곡성사회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교육청과 곡성군은 앞으로 곡성미래교육협력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역 전문강사 양성에 힘을 계획하고 있다.

내가 쓰고 그린 그림책, 우리도 작가! 광양 세풍초 학생들 창작그림책 6권 출간

광양 세풍초등학교 2019년 학생 인문·책쓰기 동아리 문주아 학생 외 5명이 '내가 쓰고 그린 그림책' 6권을 출간했다. 학생들은 그림책 창작 동아리 '주·인·공'에서 수개월 동안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가며 직접 책을 쓰고 그렸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책을 키우는 독서, 말문을 여는 토론, 생각을 나누는 글쓰기의 슬로건으로 '2019학년도 독서토론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능력을 키워줬다. 세풍초 그림책 동아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됐다. 참여 학생들은 그림책 감성 하브루타로 질문하기, 그림책 씨앗 과정으로 다양한 그림책 맛보기, 그림책 소재 찾기, 캐릭터 구성, 스토리보드구성, 글쓰기, 스케치하기, 이미지 채색과정을 통해 나만의 그림책을 완성했다. 학생들은 "스토리를 구성하고

동아리원들과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배움을 실천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 권의 그림책이 완성되어 출판되는 모습을 직접 보니 한뼘 성장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한 번이라도 이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끼를 발견하고 스스로 이루는 성과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학교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지도교사는 "아이들은 저마다 다양한 빛깔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어떤 빛깔을 내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본다."면서 "빛깔 하나를 발견해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화지를 펼쳐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앞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아동을 보내고 그 행복한 순간이 어른이 되어서도 힘들 때 꺼내어 보면서 행복지수를 올리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희망자료 킷 서비스' 운영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용자 희망자료 킷(Quick)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자 희망자료 킷(Quick) 서비스'는 도서관에 읽고 싶은 책

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구입해 비치하고 신청자에게 도착일자 알림과 우선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아 이용률이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215명이 1,059권(점)을 이 서비스로 이용했다.

1인당 1주에 3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도서관홈페이지 '도서관-희망자료신청'을 이용하거나 각 자료실(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전자정보자료실)에 비치된 희망자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희망도서 신청이 제외되는

도서 이미 도서관에 소장중이거나 소장도서로 부적합한 자료, 각종 문예집과 수험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정화 관장은 "희망도서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여 이용자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학교법인 낭암학원, 동아여자고등학교 교장 선발

현 동아여자고등학교 김영수 교사 차기교장으로 결정

학교법인 낭암학원이 광주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동아여자고등학교 교장 공모에서 이 학교에 재직 중인 김영수 교사가 신임 교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학교법인 낭암학원은 지난 1월 29일부터 1월30일까지 이를 동안 교장 공모원서를 접수했고 지난 6

일 전형을 거쳐 김영수 교사를 차기 교장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교장공모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공·사립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아여고에 재직 중인 교원 4명과 광주 공립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2명 등

총 6명이 지원했고 학교경영계획서 발표, 심층 면접, 상호 토론 등의 전형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공모에서 차기 동아여고 교장으로 결정된 김영수 교사는 1989년 3월 동아여고에 부임한 이래 31년 동안 이 학교에서 출근 근무했고, 학년부장과 교무부장을 맡은 바 있다. 차기 동아여고 교장 김영수 교

사는 "학교구성원들과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낭암학원 김성영 이사장은 "동아여중·고에 재직 중인 교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공모범위를 확대 실시한 공모전형에서 결정된 것이라 더 의미가 크다"며 "동아여고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들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발전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함평교육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걸음'

함평교육청이 지난 5일 함평읍에 신축한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젠 후 첫 전문직학습공동체의 날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함평교육청은 이날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떡 케이크를 자르며 '함평교육 다시 100년'을 여는 첫 시작을 자축했다.

1952년 교육자치제 시작으로 발족된 함평교육청은 함평리 149번지, 1964년 기각리 775-1번지, 1971년 기각리 892번지를 거쳐 현재 위치로 이설했다. 신청사는 지난해 1월 착공해 1년여 공사 끝에 건축면적 1,468.68㎡, 연면적 2,935㎡,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



졌다. 특히 Wee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영재교육원·외국어체험센터 등을 갖춰 체계적이고 전문

적인 상담서비스와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3,000명 함평인재양성의 산실로 거듭났다. 박영숙 교육장은 "2020년 새 동지에서 다시 100년을 시작한 함평교육청이 함평전지를 인재천지로 만들어 지역사회와 전남교육 발전을 이끌기를 바란다."며, "함께의 가치에 바탕을 둔 삶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금호평생교육관, 옥상 녹화 사업 업무협약

이용자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 마련

금호평생교육관이 지난 6일 오후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남구청과 옥상 녹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금호평생교육관 옥상에 푸르고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해 이용자와 주주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남구청'은 '금호평생교육관'에 옥상 녹화 사업을 위한 공사 지원 및 기술 자문을 수행하고, 공사 완료 시 시설물의 관리를 이관한다. '금호평생교육관'은 수목

등 식물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한 후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금호평생교육관 옥상 녹화사업은 광주시청과 남구청의 2020년 도시숲 조성 사업비의 지원으로 2020년 상반기인 6월까지 공사 설계와 업체 선정을 거쳐 옥상 녹화 공사를 완료한다. 금호평생교육관 양주승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